

Climbing Odaesan Mountain

Situated deep in the ranges of Gangwon- do Province, Odaesan Mountain evokes profound admiration for its natural scenery and has long been considered a sacred and undefiled space. The stories connected to Buddhism that originated from this mystical natural environment attracted people with their various wishes to Odaesan. This exhibition introduces the history and culture of Odaesan Mountain by focusing on the nature in which the Buddhist faith of Gangwon- do was formed and the stories it entail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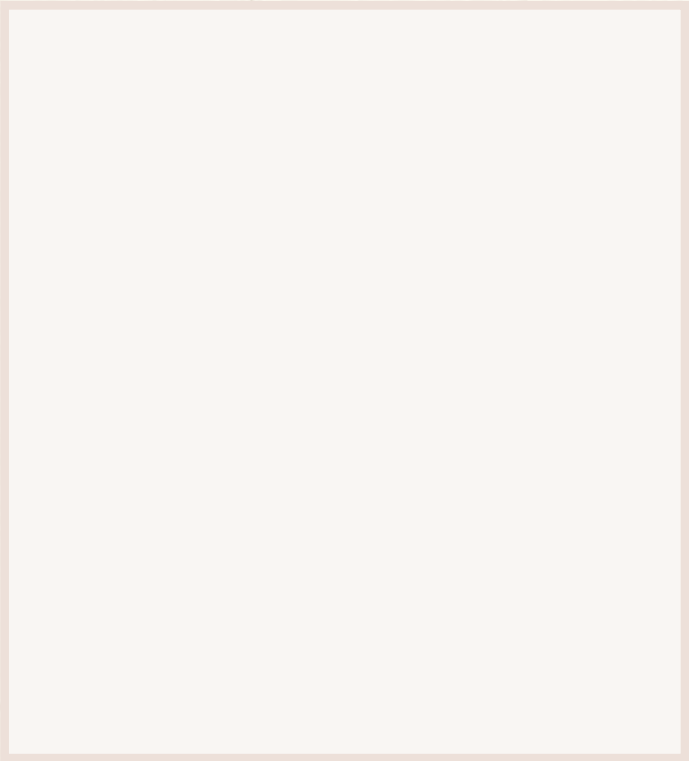


전시품 교체 안내

전시일정	유물명칭	소장기관
2024. 1. 9. ~ 2024. 2. 5.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국립중앙박물관
2024. 1. 9. ~ 2024. 2. 19.	<월정사>, <사고>《금강산도권》면교체	국립중앙박물관
	<상원암>	
	성화 17년 내수사 입안	월정사정보박물관
	강릉 보현사 나한도	
2024. 2. 20. ~ 2024. 3. 31.	상원사 중창 권선문 언해본	국립중앙박물관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물(의숙공주 발원문)	
	<상원암>, <중대>《금강산도권》면교체	국립중앙박물관
	<중대>	
2024. 2. 20. ~ 2024. 3. 31.	성화 5년 강릉대도호부 입안	월정사정보박물관
	영원사 감로도	
	구룡사 삼장보살도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물(중수 발원문)	

※ 일부 전시품은 미 전시 기간동안 복제품으로 전시되며, 전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스탬프 Cultural Heritage Stamp



2024 강원청소년 동계올림픽 기념전시
WINTER YOUTH OLYMPIC GAMES

절,
산 속에
피어난
이야기

오대산 월정사

WOLJEONGSA TEMPLE ON SACRED
ODAESAN MOUNTAIN

2024. 1. 9. 화 – 3. 31. 일

월정사정보박물관 특별전시실



월정사정보박물관
Woljeongsa Museum

국립춘천박물관
Chuncheon National Museum

오대산을 오르며

강원도 첩첩산중에 펼쳐진 오대산은
묵직한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이며,
오랫동안 성스럽고 청정한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비로운 자연에서 비롯된 불교 이야기는
깊은 산으로 다양한 염원을 가진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연꽃처럼 다섯 봉우리가 고루 뻗은 오대산 곳곳에는
불교 신앙과 문화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원도의 불교 신앙이 탄생한 자연과
이곳에 녹아있는 이야기에 주목하여
오대산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소개합니다.



오대산 신앙의 시작

The Beginning
of the Buddhist Faith
on Odaesan Mountain

오대산의 오랜 역사와 문화, 불교 신앙의 출발점을 되짚어보면 산에 봉안된 부처의 몸과 말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삼국유사 三國遺事』와 『오대산사적五臺山事蹟』에 따르면 본격적인 오대산 신앙의 시작은 자장慈藏(590~658)입니다. 자장은 중국 오대산의 문수보살에게 받은 부처의 사리를 한반도 오대산을 비롯해 여러 명산에 나누어 모셨다고 전합니다. 자장의 자취를 쫓은 후대 승려들이 오대산에 암자를 짓고 수행하며 월정사와 산내 암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금강산도권》
金剛山圖卷
Handscroll of Mount
Geumgangsán
조선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 면교체 예정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出土 舍利莊嚴具
Reliquaries Excavated from the Octagonal Nine-story Stone Pagoda
at Woljeongsa Temple

고려, 월정사성보박물관, 보물

부처와 보살, 산에 머물다

Buddhas and
Bodhisattvas Residing
on Odaesan Mountain

산은 범접할 수 없는 자연의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줍니다. 오대산이 가진 매력은 한 나라의 왕도 매료시켰습니다. 고려 태조 太祖(재위 918~943)나 조선 세조世祖(재위 1455~1468)처럼 시대를 대표하는 권력자도 산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공적으로 남겨진 기록은 이들이 겪은 경험에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과 기록, 여기서 비롯된 전설의 재생산을 바탕으로 오대산에 부처와 보살이 머물게 되었고, 신비한 이야기에 끌린 사람들은 오대산의 사찰로 모여들었습니다.



상원사 중창 권선문 上院寺 重創 勸善文
Donation Requests for the Rebuilding of Sangwonsa Temple

조선 1464년, 월정사성보박물관, 국보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과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물
上院寺 木造文殊童子坐像·木造文殊菩薩坐像 腹藏物
Deposited Votive Objects from the Wooden Seated Child Manjusri and the Wooden Seated Manjusri Bodhisattva of Sangwonsa Temple

조선, 월정사성보박물관,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회장저고리) * 전시품 교체 예정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中臺 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Wooden Seated Vairocana Buddha from
Sajaam Hermitage in Jungdae Terrace

조선 전기, 월정사성보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산 너머, 함께 만든 이야기

Beyond Odaesan Mountain:
Stories that
People Created Together

오대산은 다양한 문화를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초목이 우거지고 사람이 찾아오기 어려운 산이었기에 사고史庫가 설치되고 국가의 서적이 보관되며 기록 문화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대산은 또한 고립된 첩첩산중이 아닌 주변과 연결된 산이었습니다. 승려들은 산과 사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으며, 산 너머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진 사찰을 재건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는 산 너머 모두가 함께 만든 이야기입니다.



한암 스님 발우
漢巖禪師 鉢盂
A Set of Alms Bowls Used
by Monk Hanam

일제강점기, 월정사성보박물관



영은사 사명당 진영
靈隱寺 泗溟堂 眞影
Portrait of Samyeongdang from
Yeongeunsa Temple

조선 18세기, 월정사성보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운수암 관음변상도
雲水庵 觀音變相圖
Manifestation
of Avalokiteshvara Bodhisattva as a Lad
from Unsuam Hermitage

조선 1790년, 월정사성보박물관
강원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구룡사 삼장보살도 九龍寺 三藏菩薩圖
Tripitaka Bodhisattvas from Guryongsa Temple

조선 1727년, 월정사성보박물관, 보물 * 전시품 교체 예정

EPILOGUE

불 속에서 핀 연꽃

Lotus
Flowers Blooming
in a Flame

불교는 늘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문화를 피워냈습니다. 오대산에는 환희의 순간도 있었지만 고통과 상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어둠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고 의지를 모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던 오대산의 사찰은 진정으로 불 속에서 핀 연꽃입니다.



탄허 스님이 쓴 “화리생련” 呑虛禪師筆 “火裏生蓮”
Calligraphy “Lotus Flowers Blooming in a Flame”
Written by Monk Tanheo

현대, 대전 자광사